

‘스마트 전기침’ 한의학 과학화 이끈다

유회준 KAIST 교수팀 개발

동전만한 크기에 지능형 컴퓨터 칩이 달린 전기침 치료기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. 간편하고 과학적인 ‘스마트 침’으로 한의학의 과학화에 기여할 전망이다.

한국과학기술원(KAIST)은 전기 및 전자공학과 유회준 교수 연구팀이 동전만한 크기로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초소형 스마트 침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.

전선이 연결된 커다란 집계를 침에 연결해 전기 자극을 주는 기존 전기침 치료기는 환자가 움직일 때 침

이 구부러지거나 뽑히는 등 불안정한 상태로 치료해야 했다.

연구팀은 자체 개발한 직물형 인쇄회로 기판을 이용해 몸에 직접 붙이는 패치형 스마트 침을 개발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. 크기를 소형화하면서 복잡한 선 연결을 없앤 스마트 침에는 지능형 컴퓨터 칩이 달려 있어 치료 중 생체 신호를 감지한다는 점이 특징이다.

새로 개발된 침 치료기는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기존 침보다 작고 가벼울 뿐 아니라 성능이 뛰어나지만 가격은 100분의 1 저렴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.

허현아기자